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1월 11일(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부서	수 산 과	담당자	• 수산자원팀장 이경주 ☎ 440-4871 • 담당자 박인태 ☎ 440-4872		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옹진군 자월면 해역에 주꾸미 산란·서식장 조성
 -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, 국비 등 30억 들어 300^{ha} 규모로 조성 -
 - 산란시설물 설치, 먹이자원 조성, 주꾸미 방류 통해 어업인 기대수익 122억 예상 -

인천시가 옹진군 자월면 해역에 주꾸미 어장을 조성한다.

인천광역시는 ‘주꾸미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’이 지난 1월 10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인천시가 주꾸미 생태계 기반 조성과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.

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자월면 소이작도, 대이작도, 승봉도 해역 300ha 규모의 주꾸미 산란·서식장을 조성하게 된다.

이 곳 해역은 수심과 지형, 해양 퇴적물, 수질환경 등이 주꾸미 산란·서식장 조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시는 이 곳 해역에 피빨고둥 패각 약 10만개를 이용해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설치하고, 주꾸미 방류와 함께 먹이자원 조성을 위해 패류 방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기대수익이 투자액(30억원) 대비 4.1배에 달하는 약 1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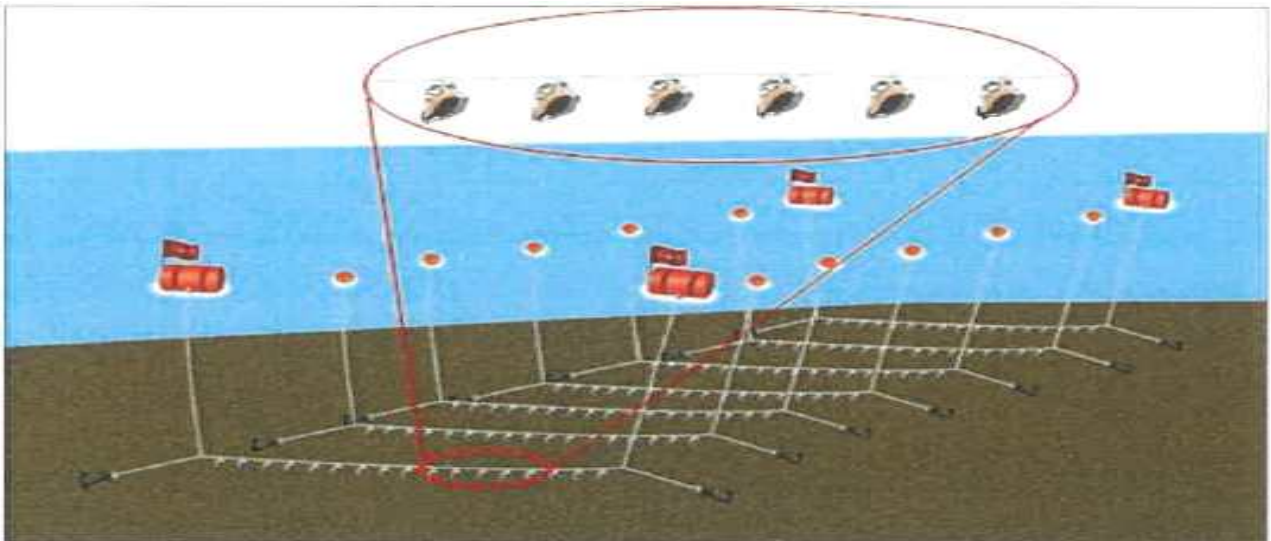
한편,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주꾸미는 팔완목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수심 5~50m 정도의 모래~자갈 바닥에서 주로 서식한다. 낙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다리를 포함한 몸통길이가 12cm 전후로 낙지보다 작다.

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인천시의 주꾸미 평균 생산량은 741톤으로 전국 평균 생산량 3,529톤의 2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년 평균 생산액은 129억 원에 달한다. 또한, 옹진군 해역의 연간 생산량은 2016년 13톤에 불과했으나, 2018년 64톤, 2019년 145.9톤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316.6톤으로 크게 증가했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이번 주꾸미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 선정은 기초조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수산자원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둔 값진 성과였다” 며, “올해에도 인공어초시설,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약 45억 원을 투입해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

< 주꾸미 산란·서식장 조성사업 대상지역 >



< 주꾸미 산란·서식장 시설 모식도 >